

News

공인인증서 폐지 한달 앞으로...대체서비스 열 올리는 시중銀

서울경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다음달 만료... 금융권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서비스를 제공... 공공분야에 자체 서비스 적용 노력도... 은행연합회가 제작한 '뱅크사인'은 개별 은행 홍보 부족으로 낮은 가입자 수... 시중은행들은 보안성 및 편리성 높이기 위해 노력....

중기 신용대출 비중 20%대로 하락... '높아지는 은행 문턱'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지난 2015년 30%대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져...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우리은행(39.44%)이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은행(17.3%)이 가장 낮아... 감소폭으로는 하나은행(32%->18.7%)이 최대

금융사고 빈발에도 銀 내부감사 부실 논란

파이낸셜뉴스

내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내부감사를 통한 적발은 전체 금융사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DSR 40%,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은성수 "규제 확대 검토"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DSR 40% 적용 대상을 전 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모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

머니투데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의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져...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 금융당국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보험사 수수방관에...안 찾아간 보험금 11조

서울경제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지난 3년간 3조원 이상 증가해 11조원 넘어서... 그 중 중도보험금이 7조원 규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공매도 대책 고심하는 당국 "개인 접근성 높아지면 양날의 칼"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 "개인 공매도 접근성 증대는 양날의 칼"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한차례 6개월 더 연장...

고객 넷 중 셋은 초고위험 투자 성향? ... 입맛대로 꿰맞춘 증권사

서울신문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위험 성향을 사실상 마음대로 판단... 리스크가 큰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 고객 투자 성향을 무리하게 높게 진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 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